



클린사업장 조성에 650억 지원 국가 지원받아 산재예방 하세요!

산업안전 문제는 과거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서 뒷전에 밀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요즘은 다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 인사관리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영세·소규모 기업들은 산재 예방에 대한 투자 여력 부족에 따라 아직도 산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201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총 650억 원으로, 공단은 약 7220여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연 650억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201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총 650억 원으로, 공단은 약 7220여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규진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자금지원담당 차장은 "이 사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기업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산재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노동부로부터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공단·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과 노동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감독·점검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등이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공단은 만약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너무 많아 공단이 배정한 재원을 초과할 경우 기관별 우선지원을 선정·지원한다.

공단은 ▲공단·대행기관의 기술지원 결과 유해·위험요인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증가 사업장 ▲공단 일선기관별 지역특성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해 보조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tip

클린사업장
전체 산업재해발생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3D(danger, dirtiness, difficulty) 사업장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범사업장
환경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폐기물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현지출장을 통해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

지원 사항은 크게 무료시설개선 지원사업, 안전보건 관리기술 지원사업, 건강도우미 운영 등이다. 무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3D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제거, 청결유지, 공정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 또는 교체해준다.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작업환경측 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해 및 직업병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보건관리 기술을 지도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장 선정은 노동부에서 과거 재해발생실적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직접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기술을 지원 해 준다.

기술지원방법은 대상 사업장을 분기 1회 이상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재해예방단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도하며, 지원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전문화·특화하여 지원한다.

기술지원 이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며,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무료 검사·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술지원 및 무료 특수 건강진단과 기계·기구 검사·수리를 해 주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비롯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자체 검사기관이다.

‘건강도우미’ 운영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요통, 경견완 증후군 등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퇴직한 간호사, 보건관련 전문가가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근로자와 개별 건강상담을 통하여 현재의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건강체조를 지도하며, 올바른 작업자세 등 건강관리기법을 지도한다.



▲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클린사업장 모습

지원 비용

클린사업은 사업장의 시설투자 편의성을 위해 ‘전체 개선’과 ‘일부개선’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공단은 ‘클린사업장 인정(전체개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0만원(상시고용증가 사업장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 개선(일부개선)’ 사업장은 1000만원(상시고용증가 사업장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선비용의 50%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개인보호장비, 안전보건표지는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개선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기술지원·투자계획수립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 대상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외부기관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또 일부개선 사업장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술지원·투자계획수립 컨설팅 시 제기된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주 대상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지원 절차

1.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발부하는 신청서를 제출한다.(첨부자료로는 회사약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사본 등이 있다)
2. 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 개선 부분을 파악한다.
3. 사업주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
4. 공단에서 심사해 사업주는 우선 자신이 시설투자하면 공단에서는 시설개선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투자금을 입금한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내 유해위험 사항을 전부 개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만 개선해도 된다.)

산재예방시설 용자·보조금 최고 40% 축소

최근 노동부(장관 임태희)가 입안 예고한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용자 및 보조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이 사고다발 우려설비나 기계를 교체할 때,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 측정설비를 신설할 때 지원되는 용자금 지원 상한액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40% 줄어든다.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이자는 연 3%다. 원래 용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등 총 10년이었다. 원래는 '거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뺐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클린사업장' 사업(이하 클린사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 역시 최고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3.3% 감소됐다. 클린사업장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 자부담 비율도 지난해 20%에서 30%로 10% 증가됐다. 클린사업장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부담 비율은 2008년까지만 해도 0%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처럼 용자금·보조금 한도를 줄이게 된 데 대해 "제한된 예산 내에서 수혜업체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용자금 혜택을 받은 사업장은 62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용자금 수혜 사업장 수(746개소)의 8.2%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클린사업 보조금을 2000만 원 이상 받은 사업장 수는 1381개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전체개선]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 개선 [일부개선]
지원금액	▶ 개선비용의 70%(사업주 부담 30%) ▶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까지 【상시고용인원 증가 사업장은 3,000만원 까지】	▶ 개선비용의 50%(사업주 부담 50%) ▶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 까지 【상시고용인원 증가 사업장은 2,000만원 까지】
지원조건	*위험기계·가구 방호장치, 개인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는 100% 지원 【1,000만원 까지】 ▶감독·점검·기술지원 및 클린사업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 ▶사업주교육 의무참석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실시	▶감독·점검·기술지원시 제기된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조건 ▶사업주교육 의무참석
지원품목	*시설투자 완료 후 지원품목 실거래금액【보조금+사업주 부담금액(부가세 포함)】자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 입금증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감독·점검·기술지원 및 클린사업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시 제기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발생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모든 설비	▶감독·점검·기술지원시 제기된 업무상 사고 발생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모든 설비
	*지원품목의 구입·시설공사는 공단 홈페이지에 구축된 "보조지원품목 온라인 공개구매제도"를 통하여 구입하거나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소로 전체 보조금 수혜 사업장 수(4831개소)의 32.7%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융자금 한도를 3억원 이하로 낮추면 수혜 사업장 수가 올해 1025개소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보조금 한도 하향으로 인해 올해 보조금 수혜 사업장 수가 7220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 클린사업장 품목 안전기준 강화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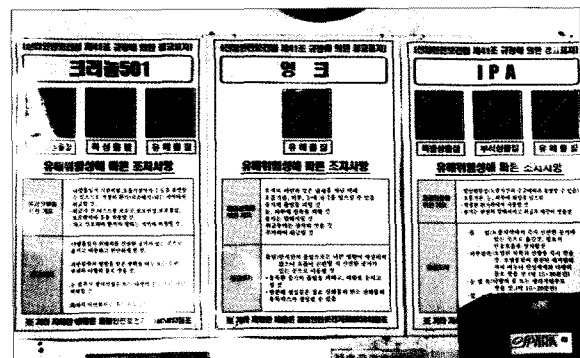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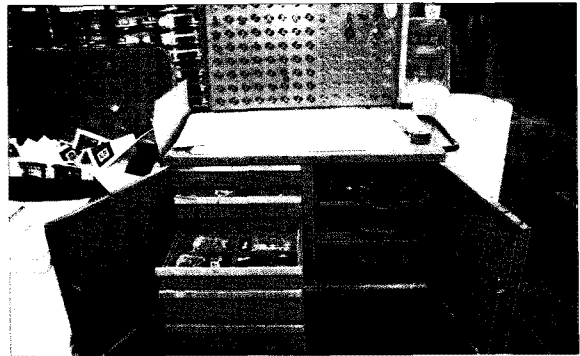
노동부는 양산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공사품목은 표준공사 시방서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를 통해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린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후 기술지도도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언급된 사업주 교육을 활용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 자금지원설비에 대해 보완 요구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모든 비용을 회수조치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금지원 신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와 시설업체간의 협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가 참여토록 안내하는 등으로 유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제재수단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 마련 중인 개선방안을 통해 클린사업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시설개선을 촉진해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는 물론 구인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예방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예방대책이 중



▲ 사진 맨 위에서부터. 지원받은 공구함, 작업장 내에 부착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성 물질에 대한 경고 조치사항,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마크



요하다. 정부는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영세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떠나는 일터에서 돌아오는 일터’라는 기치아래 ‘클린(Clean) 사업장’ 조성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에 적극 나서고 있다. 5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산재감소와 함께 3D사업장을 기피하는 청년 취업자의 취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노민기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기업경영의 목적이 단순히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적·윤리적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안전보건의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의 문제로 인식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사업 활용업체

>>>대흥프린코(주) 김재승 사장

'안전 사고'에 대한 고려가 우선



대흥프린코(주)(대표이사 김재승)는 1996년 설립, 업무용 각종 수첩, 홍보용 인쇄, 제책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부문에 걸친 종합인쇄사업을 펼치고 있다.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과 철저한 품질제일주의를 실천해 왔기에 14년을 갓 넘긴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사옥의 준공, 품질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99%가 100%를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대흥프린코(주)는 항상 깨끗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업자 입장 최우선

김재승 대표이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성과 무리한 물량 확보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한 고려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의 작업을 통해 '작업자 안전'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이다. 이는 바로 작업 환경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에 대한 대처 능력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작업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클린사업장과 관련해 "건강하고 청결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 및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취업만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중소 제조업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영은문화(주) 이건호 사장

공구함, 높낮이 조절기, 발판 등 지원



영은문화(주)(대표이사 이건호)는 1993년 설립, 국내외 우수기업들의 사보, 사사, 브로슈어, 판촉물 등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전문기업이다. 17년 동안 정도경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기술인력과 경영진의 노력으로 1997년 미쓰비시 국전 4칼라 도입과 함께 공장확장 이전을 통해 다품종 소량 및 대량의 시장형성에 대응, 생산성 향상과 이윤의 극대화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품질경영관리 시스템 'ISO9001' 인증 획득 및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돼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환경 조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사업 지원'으로 영은문화는 지난 2004년 공구대, 높낮이 조절기, 발판 등을 구입했다. 작업자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 근로지역 환경개선 및 처우개선이 애사심 고취를 통해 결국 회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고 보다 나은 인쇄환경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건호 대표이사는 "사옥을 지을 때 직원들을 위해 쾌적하고 능률적인 환경 조성에 더욱 신경을 썼다"면서 "인쇄품질은 물론 보다 새롭고 전문화된 작업장을 만들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은문화는 소량 다품종하는 시장의 여건에 적기공급·원가절감 등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IUV 이승규 사장
업무환경 개선은 매출과도 직결



(주)IUV(대표이사 이승규)는 1989년 설립, 오프라인 인쇄기에 UV인쇄가 가능토록 설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IUV는 기계의 용도와 사양에 맞춰 UV건조장치를 연구·개발·설치·A/S·UV교육 등 UV환경을 만들어 내는 UV전문업체다. 현재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까지 모색을 꾀하고 있다.

기기의 품질만큼 작업환경도 중요

클린사업장 선정은 단순히 자동화 설비만을 갖추고 있다고 부여되는 권한은 아니다. 중소기업체로서 인정 기준이 존재하며 안전상의 조치(9항목), 작업환경개선(8항목), 작업공정개선(2항목) 등의 세심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사업주와 직원들 간의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높아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IUV에서는 꾸준한 직원들 교육과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효율적인 작업 공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승규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사업영역 확대와 공정의 자동화, 깨끗한 사업장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클린사업장 선정의 배경이다. 기기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작업환경이나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설계부터 제작, 조립, 납품설치 과정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표준화와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이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진문화인쇄사 이규복 사장
깨끗한 작업환경이 업무 향상으로



서진문화인쇄사(대표 이규복)는 1989년 설립, 국2절 단색기로 출발하여 직원들의 단합된 힘을 발판으로 계속되는 발전과 성장으로 2005년 시설확장과 함께 새로운 토털 프린팅 시스템을 갖춘 회사로 성장했다. 서진문화인쇄사는 다양한 인쇄제품의 기획-디자인, 출력, 인쇄제본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인쇄업체로 20여 년간의 신뢰와 신용 그리고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인 물품지원 이뤄져야

클린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응당 사업주는 자사 공장을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안전한 상태에서 생산성을 유지해야 하나 현재의 소규모 사업장 실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의 부족으로 안전장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생산설비가 아닌 안전보건 장비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규복 대표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쓰지도 않는 제품을 보조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인 물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례로 5년 전 지원받았던 물품 중에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